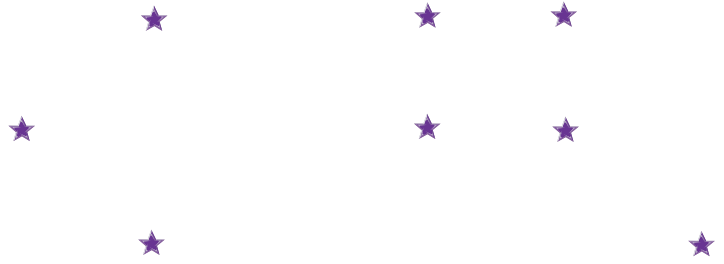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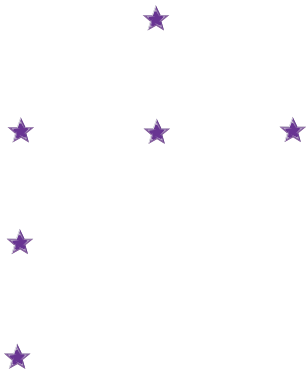
공헌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Contents





R.O.K AIR FORCE
VOLUME 471

2017 September

공군 IN

06	Pioneer's Opinion	공군 내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08	기획특집①	취미의 고수들을 소개합니다
22	포토 프레임@AF	8월의 참모총장 동정
26	Air Force Monthly	8월의 공군 소식
28	기획특집②	수재민 피해복구, 공군과 함께 이겨냅시다
30	기획특집③	가을의 시작은 클래식과 함께
32	공군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이색 카페
34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사람을 살리는 군인, 소방구조중대
36	조인, 조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현정 변호사
40	신고합니다!	16비 시설대대 병장 방성운 & 일병 이종훈
42	Fitness	가을철 탈모 예방법



GLOBAL & INSIGHT

44	Air-power Report	터보팬 엔진의 기틀을 다진 프랫&휘트니 F100
46	공군 재무관리본부	대출 이용 시 이것만은!

표지(앞)
3훈비 페이퍼 글라이더 동아리
사진 하사 김재겸

커버스토리
글 중위 이준건(홍보과)

CULTURE 36,5

48	Hollywood English	모아나
50	트렌드가 보인다	사소해 보이지만 대단한 디지털 기기들

발행일자 2017년 9월 1일(통권 제471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양근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한상균
편집감수 중령 윤영삼, 소령 박윤서
기획·편집 중위 이준건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7080344)
(910-4504, 042-553-4504)

OPINION

52	생각하는 그림	달에 함께 새긴 발자국
54	담벼락	낙엽
56	책 읽는 공군	28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Pioneer's Opinion

공군 내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글쓴이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관,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전보건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한법의학회 감사 및 대전경찰청 법의학 자문의, 한국장학재단 차세대리더 육성 멘토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어려서 ‘빨간 마후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조종사가 되면 참 멋지겠다는 생각에 한때는 조종사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 그러나 점차 나빠지는 시력 때문에 결국 그 꿈을 이루지는 못 했고, 꿈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육군에서 군의관으로 3년간 복무했다. 그럼에도 조종사에 대한 동경은 지속적으로 비행기에 대한 상식을 공부하게 만들었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동반자들과 기중에 대하여 전문가적 수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겨 하곤 했다.

전역 후 법의학관이 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면서부터는 각종 사건 사고 및 대량재해에 대한 법의학적 감정을 하게 되었다. 그 옛날 조종사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는 달리, 여객기 추락에 따른 희생자 사고처리나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행한 사망사고 수습으로 공군 수사관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몇 년 전부터는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으로 공군장병들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 질문은 공군 장병들이 전투기와 미사일·방공포 등으로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감과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의료인들의 경우, 초현대식 건물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는 최고 수준의 직업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모든 질병은 극복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인들은 끊임없이 내·외적 요인들과 충돌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의학을 하는 의료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 법의학 분야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긴장감이 없다는 주장에는 판단을 유보할 수 있겠으나, 정신적 압박감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적 스트레스와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의료인에게도 정신적 스트레스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인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고가의 전투기와 장비를 이용하여 하늘을 지키는 공군 장병들은 다른 군에 비하여 여유 있고 좋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다. 그러나 영공을 방위하는 공군의 특성상 밤낮은 물론 날씨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긴급 상황에서, 한 치의 오차와 방심도 허용치 않는 근무 환경은 공군 장병에게 형용할 수 없는 정신적 압박감과 긴장감을 주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물론, 공군에서도 체계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한다. 조종사를 비롯한 모든 공군인들은 24시간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며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압박감과 긴장감을 해소할 시간과 여유를 가져야 한다. 특히, 공군은 정책적으로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실제 전투에서 군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점을 생각하면, 평시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의료계도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軍)이 앞장선다면, 군이 민간을 선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공군 장병 스스로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진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공군을 지지하고 존중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이런 점을 기억하며 군 복무를 한다면, 정신적 압박감과 긴장감은 한층 낮추고,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취미의 고수들을 소개합니다

편집
중위 이준건
(홍보과)



내 취미로 말할 것 같으면~ 취미의 고수들을 소개합니다

덕질? 덕후? 성덕?

‘오랜만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A씨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용어에 궁금증이 생겼다. 아무리 인터넷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발하다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남발되는 이 ‘덕’이라는 글자는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걸까? 어질 덕(德)? 품성이 바르고 행동이 방정한 사람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일까?’

최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덕질’, ‘성덕’ 같은 용어는 취미에 대하여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심도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일본어 ‘오타쿠’의 한국식 표현 ‘오덕후’에서 유래했다. 즉, 오덕후의 준말이 ‘덕후’이고 덕후가 열심히 하는 취미생활은 ‘덕질’이며, 성공한 덕후는 ‘성덕’이다. 또한, 새로운 취미생활에 빠지는 것은 ‘입덕’이라 하며, 자신의 취미생활을 밝히는 행위는 ‘덕밍아웃(덕질+커밍아웃)’이라 한다.

자신이 어떤 분야의 덕후임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처럼 드러내놓고 ‘덕질’을 하는 추세다. 키덜트 페어(Kidult Fair)라는 전시회가 개최될 정도로 어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장난감 및 인형 판매가 성업을 이루고, 한때는 다소 마니아하다고 여겨졌던 코스프레·서핑·피규어 수집 같은 취미들도 거리낌 없이 각종 SNS와 언론에 소개된다. 이제 취미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누구나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삶의 요소가 되었다.





너의 취미는.

보통 취미는 여가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취미는 업무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취미로 시작한 격투기는 군인의 전투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고, 항공기 프라모델 조립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렇다면 공군인의 취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군인'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매일 뛰고, 전투기의 기종을 달달 외우며 군기를 즐겨 부르는 모습을 떠올렸는가?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공군인 또한 여느 민간인들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 '병사'와 같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취미부터 '자격증 수집', '페이퍼 글라이더'라는 이색적인 취미까지, 혼자서 또는 함께 즐기는 취미활동! 공군인의 행복한 취미생활 이야기에 귀기울여보자. **AF**



공군 IN

기획특집 1

취미의 고수들을 소개합니다

글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하사 김재겸
(홍보과)



취재지원
중위 박진용
(3훈비 홍보과)



친목도 다지고 전문성도 기르고

3훈비 페이퍼 글라이더 동아리



첫 번째로 소개할 취미활동은 동아리 활동. 그중에서도 특별히 제3훈련비행단의 동아리인 '페이퍼 글라이더' 동아리를 소개한다. 2015년에 만들어진 신생 동아리지만, 10여 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경남·사천지역 스페이스 챌린지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할 정도로 활동적인 동아리이다.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의 김동휘 병장은, 에어쇼에서 공군과 페이퍼 글라이더 활동을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동아리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다.



▲ 김동휘 병장(3훈비 페이퍼 글라이더 동아리 회장)

종이로 만드는 세상

“페이퍼 글라이더 동아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평면으로 되어 있는 종이 전개도를 잘라 접거나 붙여서 입체적인 작품을 완성시키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비교적 초심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캐릭터나 귀여운 동물부터, 공군의 주요 전력인 전투기까지 다양한 종류와 난이도의 작품들을 만듭니다.”

앞서 소개했듯 그리 오래된 동아리는 아니지만, 동아리 회원들과 회장의 열정에 힘입어 이들이 수집한 페이퍼 글라이더 자료는 꽤나 많은 편이다. 그는 카카오톡 캐릭터와 귀여운 강아지, 공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블랙이글스(T-50B)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들을 자랑스레 펼쳐보였다. 재미있는 점은 입체감이 살아있는 캐릭터나 동물보다 전투기를 만드는 게 더 어렵다는 것. 수많은 항공과학기술이 집약돼 있는 전투기인 만큼, 페이퍼 모형 역시 더 높은 난이도와 정교함을 요구하는 듯했다.

만들었으면 전시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 공군 비행단의 동아리답게, 이들은 ‘경남·사천지역 스페이스 챌린지 예선대회’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따로 부스를 운영할 만큼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김동휘 병장은 그만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다고 말했다.

“페이퍼 글라이더들을 탁자 위에 진열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보고 흥미를 가진 한 아이가 갖고 싶다고 떼를 썼죠. 전시용 모형이라 줄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 아이는 울면서 그 비행기를 파손해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가질 수 없으면 파괴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페이퍼 글라이더들. 작품들을 보니 아이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페이퍼 글라이더, 그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페이퍼 글라이더 동아리의 현재 회원 수는 약 10여 명에 달하며, 2주마다 정기적인 장소에 모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병사 게시판을 이용해 회원들을 모집하지만, 때로는 관심 있는 병사들이 먼저 회원가입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얻는 것이 많은데, 그는 이를 공군의 핵심가치에 비유해서 말했다.

“‘도전’과 ‘팀워크’, 그리고 ‘전문성’을 주로 쌓을 수 있다는 것이 동아리 활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전개도로 쉬운 작품들을 만들었다면, 점점 ‘전문성’을 쌓아 나가면서 어렵고 멋진 작품에 ‘도전’할 수 있으며, 어렵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작품이 있을 때는 ‘팀워크’를 통해 함께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죠.”



페이퍼 글라이더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평면 전개도부터 시작해 입체적인 작품을 만듦으로써 성취감과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완성시킨 작품은 생활관이나 관물함을 꾸미는 인테리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

그렇다면 페이퍼 글라이더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그에 말에 의하면, 쉬운 난이도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처음 전개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되면 어떤 것부터 자르고 만들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전개도 파일과 같이 있는 설명서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만드신다면 어렵지 않게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양이 많고 어려운 작품을 시도한다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나 동물과 같이 쉬운 난이도의 전개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전개도의 큰 부분을 자를 때에는 가위를, 작고 미세한 부분들을 자를 때에는 전용 칼을 사용하시는 것이 정교함과 편의성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 : 에어쇼!

야구선수들의 로망인 ‘메이저리그 진출’처럼, 3훈비 페이퍼 글라이더 동아리도 동경하는 목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스페이스 챌린지 전시를 넘어, 에어쇼에서도 전시회를 갖는 것. 일단은 동아리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전개도를 입수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한 그는, 자신과 동아리 전체의 포부를 말했다.

“페이퍼 글라이더 동아리의 최종 목표는 현재 공군 내 모든 종류의 항공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와 에어쇼 행사 등에 전시하는 것입니다. 꼭 전역 전에 목표를 이루고 싶고,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회원들이 시간이 걸려서라도 목표를 달성했으면 합니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분명한 열의가 느껴졌다. 언젠가 그의 목표가, 아니 동아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취미의 고수들을 소개합니다

글 박민혜(공감기자)



사진 하사 김재겸(홍보과)

취재지원
대위 이수희
(홍보과),
중위 권오현
(10비 정훈실)



취미를알자, 취미를배우자 10비 문화예술 체험교육 '뮤지컬'

※ 병영 문화예술 체험교육

병영 문화예술 체험교육은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음악, 미디어, 미술, 국악, 연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병영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 교육은 군 장병 개개인에게는 삶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유대감을 증진시켜 원활한 병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화예술 체험교육은 연중 60시간 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부대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장병들의 취미 활동 수준을 높이고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자, 여기서는 발성을 통해 대사를 강조해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뮤지컬 수업이 한창인 제10전투비행단 강당. 수업에 참여한 장병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응? 그런데 군대에서 웬 뮤지컬 수업이냐고? 10비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체험교육’이 뮤지컬 수업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체험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사업으로, 민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단체와 군부대를 연결하여 장병들이 사진·악기연주·미술·뮤지컬 등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즉, 군에서 지원하는 ‘취미활동’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정훈실에 묻다

AF: 문화예술체험교육으로 ‘뮤지컬’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위 권오현: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각 전대를 대표하는 으뜸병사들의 회의 시간에 전파하여 그중 가장 높은 득표를 받은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뮤지컬은 선호도도 가장 높았고 군내·외에서 상대적으로 배울 기회가 적을 것 같아 선정했습니다.

AF: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병들이 달라진 바가 있다면?

중위 권오현: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장병들이 수업에 더욱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 뿌듯했어요. 정규수업 외에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모여 토의를 진행하는 등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 간부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강사에게 묻다

AF: 수업을 진행해 보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노상현(연기): 생각했던 것보다 장병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많이 놀랐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로 하는데, 여기만큼 활발하게 참여하는 수업이 없거든요.

김문학(보컬): 처음에는 오히려 저희가 걱정했어요. 이들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고요. 다들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해줘서 너무 고맙죠.



병사에게 묻다

AF: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병장 심현우(범무실): 주변에 음악이라든지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멋있어 보이고 부러웠습니다. 우연히 입대 후에 좋은 기회가 생겨 바로 신청했습니다.

상병 김유현(수송대대): 뉴욕 여행을 갔을 때 뮤지컬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입대 후,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지원했습니다.

AF: 수업을 통해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상병 정재민(정훈실): '내가 표현에 정말 서툴렀구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그 순간만큼은 평소에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내가 아닌 정말 솔직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병 지현수(인사행정처): 발성이나 호흡법, 시나리오 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또, 협동이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느끼고,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상병 김다천(정훈실): 처음에는 즐겁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노래나 연기의 기초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고 또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취미의 고수들을 소개합니다

편집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상사 한범희
(19비 정훈실)



취재지원
중위 김선재
(19비 정훈실)



프로 프라모델러, 프라모델로 전투기를 배우다!

19전비 정하록 일병

1:48, 1:72, 1:400, 1:700.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다소 낯설게 느껴질 비율이지만, 한 번쯤 이 취미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프라모델 모형과 실물 사이의 대표적인 크기 비율이다! 프라모델 취미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지만, 전투기의 특징을 익힐 수 있어 관련 업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당장이라도 출격할 것 같은 전투기와 금방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전차를 만드는 정하록 일병을 만나보았다.

AF: 공군에 입대해서도 프라모델의 끈을 놓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데요, 어떻게 취미를 갖게 되었나요?

일병 정하록: 전쟁에서 전차나 전투기로 활약했던, 이른바 ‘에이스’ 들의 활약을 보면서 거기서 나온 차량이나 기체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의 네임드 기체인 F-51D 머스탱(무스탕) ‘신념의 조인’이나 150여 대의 적 전차를 격파한 오토 카리우스가 마르나파 전투에서 탑승했다고 알려진 217호차 ‘티거’, 최근에 개봉한 영화 ‘덩케르크’에서 나온 영국 공군의 ‘스핏 파이어’와 3년 전에 개봉한 영화 ‘퓨리’의 등장인물들이 탑승한 M4A3E8 ‘Fury’ 등을 만들었습니다.

AF: 프라모델 만드는 솜씨가 매우 훌륭한데, 누군가에게 보여주시기도 하나요?

일병 정하록: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에 출품을 하기도 합니다. 관람객 분들이 제 작품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정받는 기분이 듭니다. 이외에 개인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완성된 전투기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놀아줄 때도 있습니다.





AF : 프라모델과 관련된 특이하거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일병 정하록 : 자주 다니는 모형샵 사장님께 제가 사는 지역 모형 동호회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의사를 밝히기 위해 해당 동호회 작업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라 찾아가는데 고생했지만, 동호회 회원 분들과 면담하며 작품 이야기를 나누고 제 작품에 대한 칭찬도 들었습니다. 비록 전시회 참여는 공간 문제로 실시하지 못했지만, 전시회에서 동호회 회원 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나중에 같이 참여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돈도 시간도 아깝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AF : 밀리터리 프라모델은 우리 공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취미 활동을 통해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병 정하록 : 저는 대공방어대 소속인데, 항공기 프라모델을 조립함으로써 대공방어 업무에 중요한 '항공기 식별'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기학교에서는 교관님이 프라모델 완성품을 항공기 식별 교재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셨고, 저 역시 전투기를 만들면서 해당 전투기의 특징이나 모양을 익히고 이것을 항공기 식별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과거 소련에서는 서방의 신형 항공기가 나오면 그 항공기 키트를 구해서 연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AF : 프라모델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전수해 준다면?

일병 정하록 : 팁이라기엔 부끄럽지만, 가장 즐겁게 프라모델을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것을 만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2차대전 영국군 전투기를 좋아하는데 현대 독일연방군 전차를 만들게 된다면, 프라모델은 즐거운 취미가 아닌 귀찮은 잡업에 불과합니다. 모형을 하다보면 고층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기도 하는데 이 역시 너무 신경을 쓰면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취미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만족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취미가 스트레스를 주면 취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F : 앞으로 취미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일병 정하록 : 현재는 전역 전에 작품을 만들어서 한국 타미야가 주최하는 '타미야 콘테스트'에 출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품 구상은 영화 '바르샤바 1944'에 나온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고 전차와 피규어 등 기본적인 것도 준비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작품을 출품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편이지만, 입상한다면 더 좋겠지요. **AF**





공군 IN

기획특집 1

취미의 고수들을 소개합니다

편집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하사 이진우
(8전비 정훈실)



취재지원
중위 최지형
(8전비 정훈실)



특기는 요리, 취미는 봉사! 8전비 윤상준 주무관

국제요리경연대회 창작찬 요리부문 4년 연속 금상, 강원도 요리대회 금상, 중국 상하이 세계요리대회 동메달, 2016 독일 세계요리올림픽 장려상... 화려하다 못해 번쩍번쩍 빛이 나는 요리경력을 지닌 주인공은 8전비 복지대대의 8급 윤상준 주무관이다. 학창시절부터 요리를 시작해 지금껏 요리 외길인생을 걸어오고 있다는 그의 취미는 다름 아닌 '이웃사랑'. 복지관을 비롯해 각종 시설과 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요리를 해주는 것이 그의 취미라는데, 과연 무엇이 그를 나눔의 길로 이끌었을까? 요리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AF : '요리 외길인생'이 잘 어울리십니다. 취미 또한 '급식봉사활동'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봉사활동을 취미로 갖게 되었나요?

윤상준 주무관 : 평생 요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개인적으로 급식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어서, 어르신들께 음식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설거지까지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려는데 어느 어르신이 저를 꼭 안으시며 “잘 먹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몽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취미활동으로 급식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 팀을 꾸렸죠. 돈은 있지만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등 각자의 역할이 정해졌고, 저는 조리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1992년, 어느 복지관에서였습니다. 대개 복지관은 환경이나 여건상 조리할 수 있는 음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짜장면이나 돈가스를 드시고 싶어도 요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는 복지관에서 처음으로 급식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지금까지 고아원·보육원 등 다양한 시설과 기관에서 무료로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F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윤상준 주무관 : 신체·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사람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반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있어서 몹시 놀랐습니다. 아이가 매일 시설 입구를 쳐다보기에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니 제가 언제 오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AF : 오랫동안 요리 및 봉사활동을 한 만큼 선후배 사이도 끈끈하다고 들었습니다.

윤상준 주무관 : 전국적으로 선·후배들이 많고, 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한 번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 얼굴 한 번 보기가 힘든데, 봉사를 통해 서로 얼굴도 보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니 무척 행복합니다.

AF : 혹시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지침이 있나요?

윤상준 주무관 : 봉사활동을 할 때는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은 제가 고아원에 급식봉사를 하러 갔을 때, 제 아이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하자 다른 아이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봉사를 하러 가서 오히려 아이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 셈이었죠.

AF : 봉사활동을 통해 업무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윤상준 주무관 :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직장 일이다 보니 다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급식봉사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민간인들과 유대감을 느끼며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또, 봉사활동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을 만나면 ‘공군에 몸을 담고 있는 조리인’으로서 자부심을 더 느끼게 됩니다.

AF : 앞으로 급식봉사활동이라는 취미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윤상준 주무관 : 좀 더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외받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네요. 여건이 된다면, 퇴직하고 나서는 조리가 가능한 차량을 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AF**



▲ 중국 상하이 세계요리대회에 출전했을 당시의 사진



▲ 마을회관에서 급식봉사를 마치고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공군 IN

기획특집 1

취미의 교수들을 소개합니다

편집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중위 최준오
(교육사 정훈실)



취재지원
중위 방승재
(교육사 정훈실)



제 취미요? 자격증 수집입니다! 교육사 곽상빈 대위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이외에 30여 개에 달하는 수많은 자격증들. 남들은 자격증 하나 갖기도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곽상빈 대위는 “자격증 수집이 취미였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말했다.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성취감이라는 달콤한 열매까지 얻을 수 있는 ‘자격증 수집’ 취미.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AF: 자격증 수집이 취미라니,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취미를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곽상빈 대위: 저는 원래 공부를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구구단을 제대로 암기하지도 못했고요, 중학교 때는 컴퓨터에 빠져서 성적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을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벤처기업 ‘데모닉스’를 창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년도 되기 전에 폐업했죠. 제가 나이도 어리고 미숙했던 탓에 일을 망쳤습니다. 제 삶의 이유가 사라진 기분 때문에 죽고 싶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 쌓아 둔 컴퓨터 실력으로 밥을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재기를 해야 했기에 취업을 알아보던 중,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친구에게 국제자격증 취득 정보를 입수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CCNA 등 IT국제자격증을 10개 정도 취득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취미가 되었죠.

AF: 자격증 수집이 취미라서 좋은 점이 있다면?

곽상빈 대위: 공부나 연구가 취미이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만, 공부를 취미로 가지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일례로, 자격증 수집을 하다 보니 대학생 때는 교내 교육개발지원센터에서 튜터링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 강의까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회계학 강사로 나름 유명강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제 업(業)이 된 것이죠. 강사생활을 하다가 학사장교로 군대에 왔는데 마침 재정교관실에서 교관을 선발하고 있었고, 회계학 강사 출신인 제가 교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지금은 재정교관실에서 회계관리사재경관리사 등의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여 강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자격증





합격노하우를 정리하여 '합격비법 100문100답'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AF: 취미 활동이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곽상빈 대위: 재정업무와 세금, 각종 경제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업무인 만큼,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수록 교육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고급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생들의 강의평가에서 최고의 피드백을 받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르치고,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지식을 숙달하는 것이 평소의 일상이자 취미이기 때문일 겁니다.

AF: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비롯한 '공부'를 어려워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까요?

곽상빈 대위: 생각해보면 자격증 취득의 묘미는 '성취감'에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무한한 '자기신뢰'도 쌓이게 되지요. 이러한 성취와 신뢰가 쌓이면 공부에 재미가 생기고, 그것이 누적되면 공부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우등생 DNA'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전문성과 주특기가 생기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지요. 솔직히, 공부 자체가 재미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가 매력적일 뿐이죠.

AF: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팁을 소개해준다면?

곽상빈 대위: 자격증 취득의 '꿀팁'은 기출문제를 무한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교과서와 기본서는 가장 나중에 보는 것이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절대로 기본서에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부분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하다보면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몸에 익게 되어있고, 아무리 많은 양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AF: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곽상빈 대위: 공부 노하우나 자격증 취득의 비결을 더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자격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해서 자신만의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식과 방법을 전파해서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찾는 데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AF**



이왕근(李旺根) 대장 프로필

- 공군사관학교 31기
- 前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 前 공군교육사령관
- 前 공군작전사령관
- 前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 現 제36대 공군참모총장



📷 제36대 공군참모총장 이왕근 대장 취임

제35·36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8월 11일(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36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이왕근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 육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전 장병 및 군무원에게 “작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응개념을 정립하고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대비태세 현장지도

참모총장은 UFG 위기관리연습이 시작된 8월 16일(수) 대비태세 점검차 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참모총장은 항공우주작전본부, 탄도탄작전통제소, 중앙방공통제소 등 임무수행현장을 찾아 연합작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무더위 속에서도 24시간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AF**





제36대 참모총장 취임사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군 전장병과 군무원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함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명예 의하여 제36대 공군 참모총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군참모총장으로서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장관님의 지휘의도를 받들고 국방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더욱 강력한 공군력 건설과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 공군 육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뿐 아니라, 고강도의 사이버 도발 등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보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응 개념을 정립하고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투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실전적 전투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는 전투요원들의 실전적 전투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투부대 지휘관들은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훈련요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고, 과감한 행정 간소화를 통해 전투요원들이 전투임무와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한훈련은 엄정한 작전기강과 철저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 안전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와 함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항공우주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미래의 안보 및 전장 환경 하에서 항공우주력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합동전장을 주도함으로써 희생을 최소화하고, 최단기간에 전승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공군은 올해부터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 타우러스 등 핵심전력의 순차적 전력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핵심 무기체계들이 적기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무요원 선발과 교육을 비롯하여 정비체계 및 방호시설 구축 등 성공적인 전력화를 위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공군의 미래를 위한 주요전력의 안정적인 전력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자긍심과 경쟁력 있는 공군을 만들어 갑시다.

강한 전투력 발휘를 위한 최고의 정신적 가치인 자긍심의 함양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군인 모두가 자신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조국 영공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동료에 대한 말 한 마디, 표정 하나하나에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담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긍심의 또 다른 원천은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경쟁력입니다. 이를 위해 장병 개개인은 공군만의 특성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직과의 협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으로써 어떤 위치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조직 측면에서는 장병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시스템적 기반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

앞서 강조한 사항들은 참모총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저를 비롯한 전 장병과 군무원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공군 참모총장 대장 **이왕근**



August 2017 www.airforce.mil.kr



교육사, 공군 하늘사랑 병영캠프

교육사령부는 8월 7일(월)~10일(목) 지역 청소년들에게 공군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늘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한 공군 하늘사랑 병영캠프를 개최하였다.



1전비, 빛고을공원 개장식

제1전투비행단은 8월 2일(수) 영내 전 장병과 군무원 및 관사 가족들의 복지를 위한 빛고을공원의 개장식을 실시하였다.



3훈비, 국가안전전문 인력양성 사업단 부대견학

제3훈련비행단은 8월 3일(목) 국가안전전문 인력양성 사업단의 부대 견학 행사를 실시하였다.



8전비, 제38주년 부대창설 기념식

제8전투비행단은 8월 1일(목) 부대창설 제38주년을 맞아 장병 및 군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10전비, ACE TEN 조종사 수영대회 개최

제10전투비행단은 8월 1일(화) 조종사들의 강인한 전투체력을 연마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ACE TEN 조종사 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11전비, 부서관단 아이스크림 데이

제11전투비행단은 8월 8일(화) 부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관단 주관으로 '아이스크림 데이' 행사를 실시하였다.



15비, 세곡동 청소년공부방 및 학생 기자단 부대견학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8월 9일(수) 안보관을 함양하고 공군에 대한 친밀함을 더하기 위해 세곡 청소년공부방 및 청소년 기자단의 부대견학을 실시하였다.



16전비, 밴드 동아리 거리공연

제16전투비행단은 8월 1일(화) 부대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밴드 동아리 「통신보안」의 거리공연을 실시하였다.



17전비, 병 774기 부모초청행사

제17전투비행단은 8월 4일(금) 공군과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병 774기 부모초청행사를 실시하였다.



18전비, '오색달빛 강릉 야행 행사' 지원

제18전투비행단은 8월 3일(목)~5일(토) 강릉 대도호부관아 일대에서 열린 '3rd 오색달빛 강릉 야행' 행사를 지원하였다.



19전비, 사랑의 헌혈

제19전투비행단은 8월 7일(월)~8월 11일(금) 고귀한 생명 나눔의 실천을 위해 사랑의 헌혈 참여 행사를 실시하였다.



20전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제20전투비행단은 7월 28일(금), 8월 4일(금) 군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2

수재민 피해복구,
공군과 함께 이겨냅시다

글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공사·17비 정훈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지킨다 수재민 피해복구, 공군과 함께 이겨냅시다

7월 16일. 뜨거웠던 한여름, 청주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90mm, 하루 동안 내린 비는 300mm에 달했다. 엄청난 폭우에 일터와 보금자리를 잃은 청주지역 농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군이 발 벗고 나섰다. 장교·부사관·병은 물론, 공군사관학교 생도들까지 수해복구에 투입된 것이다.



▲ 수해복구에 참여한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 피해복구에 열중하고 있는 제17전투비행단 장병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청주 지역을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2,000여 명의 공군사관학교 장병들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특히 생도들은 하계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고 대민지원에 동참했다. 또한, 제17전투비행단에서는 7월 17일부터 8월 3일까지 수해지역 일대에 1,000여 명의 장병들을 투입했으며,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대민지원에 힘썼다.

한여름이었던 7월. 평균 기온 30도를 가볍게 넘기는 폭염으로 굵은 땀방울이 끊임없이 장병들의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장병들의 헌신은 멈출 줄 몰랐다.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보호이기 때문이다. **AF**





가을의 시작은 클래식과 함께

김덕기 서울대 음대 교수를 만나고

공군 군악대 268기로 입대했던 김덕기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있다. 그 옛날 공군본부가 위치했던 대방동에서 35개월간 편곡을 담당했다는 그는, 아직도 공군 전우들과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이순(耳順)을 넘겼음에도 소년적인 감성과 편안한 분위기를 가진 클래식 만물상(萬物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대개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궁금해 한다. 영화를 볼 때, 미술 작품을 살필 때 등이 그렇다. 그런데 김덕기 교수에 의하면, 음악은 그 자체가 본질이지 무엇을 표현하는 매체는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페라에는 스토리가 담기는데 이는 음악을 끌고 나가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갈등이나 그리움, 고독감 등의 추상적인 감정을 떠오르게 하는 게 음악의 힘이고 본질이죠.”

같은 듯 다른 동북아 클래식

김덕기 교수는 한·중·일 3국 중에서 클래식의 역사가 제일 짧은 건 우리나라라며, 동북아 클래식의 역사를 소개했다. 페리 제독과 검은 함대의 등장으로 개항한 일본 클래식의 역사는 얼추 한 세기하고도 반쯤 더 된다. 의외로 중국도 클래식을 일찍 받아들였는데, 1930년대부터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 발레리나 마고트 폰테인(Margot Fonteyn)이 기초를 다진 곳이 바로 홍콩이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클래식계를 풍미하고 있는 중국의 랑랑(朗朗)이 데뷔를 위해 오디션을 볼 때, 그와 비슷한 실력자가 6천 명쯤 있었다고 하니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실력도 깊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덧붙여 그는 한·중·일의 클래식이 그 스타일도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연주하는 탄탄한 조직력이 돋보인다. 중국은 아크로바틱한 기교가 귀를 자극하여, 마치 서커스를 보는 듯한 곡예의 흐름은 감히 흉내 낼 엄두가 쉬이 나지 않는다. 한국은 조직력보단 개개인의 역량이 드러난다. 그래서 특히 솔로 연주가 강세라고 할 수 있다.

우열이 아닌 표현의 차이

“그런데 교수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클래식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그는 클래식이나 대중음악 사이에 높낮이가 있거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로 추구하고 표현하는 것이 다를 뿐. 대중음악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감정을 강렬하지만 일관되게 전달한다. 예를 들어 ‘고백’이나 ‘이별’ 같은 단일한 주제를 담아내는 것이 대중음악이고 또 잘 표현해낸다. 반면 클래식은 보다 좀 복합적인 감상을 녹여낸다. 대중음악이 메시지라면 클래식은 스토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단다.

그럼에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김덕기 교수는 클래식을 처음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협주곡’부터 들어보길 권했다. 피아노 협주곡처럼 솔로가 선명하고 주선율이 쪽 나오는 곡들을 이해하기 쉬우니, 그렇게 조금씩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나가면 분명 클래식만의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들 가을을 예술의 계절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첼로라는 악기가 가을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음악가 글라주노프(Glazunov)의 〈사계〉를 들어보세요. 특이하게도 봄이 시작이 아닙니다. 겨울에서 시작하여 봄에 태동한 생명력이 여름에 만개하다가 가을에 이르러 가라앉는 과정을 표현했죠. 브람스(Brahms)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도 가을에 들을 만합니다. 느린 템포에 첼로의 솔로는 가을의 황량한 고독감과 기막히게 맞아 떨어지죠. 이를 두고 어느 라디오에서 노(老)교수는 “한없이 울고만 싶은 소녀의 마음”같다고 했습니다. 좀 유치하긴 해도 더할 나위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브람스의 협주곡을 들어보았다. 쓸쓸한 느낌을 자아내는 피아노와 첼로의 선율이, 어쩐지 서글픈 감정에 어울리는 듯했다. 가을의 도입부인 9월, 본격적으로 ‘가을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클래식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나조차도 나의 감정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어쩌면 클래식이 대신 답해줄지도 모른다. **AF**



◀ 러시아의 음악가 알렉산드르 글라주노프
(Aleksandr Konstantinovich Glazunov)



◀ 독일의 음악가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공군 IN

공군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 이색 카페

글·사진
최승우(공감기자)



볼거리 더하기 즐길거리, 그리고 커피 '이색 카페'

여름 무더위는 지났지만 밖에 나들이하기에는 여전히 날씨가 뜨겁다. 그렇다고 바다나 계곡, 워터파크에 가기에는 춥고 여름만큼의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것이 사실. 그렇다면 시원한 카페로 눈길을 돌려보자. 커피 말고 다른 건 없지 않느냐는 속단은 금물! 최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카페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8~90년대 고전게임을 즐겨보자 '레트로카페 트레이더'

스마트폰 게임에 이어 이제 VR게임까지 나오는 최첨단을 달리는 요즘, 옛날 느낌의 저해상도 도트 그래픽 스타일의 게임이 다시금 환영받고 있다. 그만큼 어렸을 때를 추억하고 싶은 '아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 터. 지금은 찾기 힘든 어린 시절 즐겼던 게임을 다시금 경험해보고 싶다면 '레트로카페 트레이더'를 방문해보자. 일본제품 유통 사업가이자 고전게임 마니아인 사장의 애정이 묻어나는 이곳에는 예전부터 수집한 8~90년대 각종 게임 패키지 컬렉션을 구경하고 구매도 할 수 있어 그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무엇보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커피 한 잔만 시키면 슈퍼마리오, 갤러그, 소닉 등 추억의 게임을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배우 이시연과 가수 은지원이 게임을 즐긴 곳으로 방송을 타기도 하였는데, 고전게임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방문할 만하다.



주 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6-1, 2층
운영시간 : 11시 ~ 22시
이용안내 : 음료 주문 시 각종 게임기 이용 무료
연락처 : 070-8807-6910

이런 분께 추천해요 : **롤러[이] 가족[] 연인[이]**





블록과 함께 쌓이는 사랑과 우정 '스마일 블럭'

가족과 연인 나들이 코스로 인기가 많은 파주. 좀 더 색다른 재미를 체험해보고 싶다면 레고카페를 가보는 건 어떨까? 파주 운정 카페거리에 있는 '스마일 블럭'은 커피와 음료는 물론 500여 가지 레고블럭을 즐길 수 있는 이색카페이다. 귀여운 유아용 미니블럭에서부터 스타워즈, 디즈니 시리즈 등 성인 남녀들도 좋아하는 블럭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온 가족손님은 물론 젊은 커플들이 블럭 조립에 집중해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단, 주말에는 블럭 조립에 삼매경인 손님들이 가득 찬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연락을 해보길 추천한다.

주 소 : 경기 파주시 동패로63번길 36-7
운영시간 : 평일 13시~22시, 주말 10시~22시
이용안내 : 블럭이용 테이블 당 1시간 6,000원(회원가입 시 5,000원)
연락처 : 031-949-0052
이런 분께 추천해요 : 홀리[]가족[O]연인[O]

목욕탕 콘셉트의 갤러리 카페 '문화장'

대구의 교통에는 개성 있는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문화장'은 지나다보면 단연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시각 디자이너,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광고기획자, 안무기획가에 바리스타까지 다양한 분야의 청년 아티스트 여섯 명이 힘을 합쳐 40년 된 오래된 여관을 개조해서 올해 오픈한 이곳은 옛 모습을 간직한 독특한 카페이자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층 카페공간은 목욕탕 시설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하여 대단히 독특한 분위기가 인상적인데, 구석구석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이 살아있는 소품들로 꾸며져 있어 예술가들의 센스를 느껴볼 수 있다. 또한, 고급 원두와 추출머신을 사용하는 등 커피 맛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카페 본연의 역할도 잊지 않고 있으며, 3층 아틀리에에서는 개성있는 작품들을 감상하고 설명도 들을 수 있어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대구의 또 다른 명소라고 할 수 있다. **AF**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12길 51
운영시간 : 10시~23시(카페 및 갤러리 동일)
연락처 : 053-252-2005

이런 분께 추천해요 : 홀리[O]가족[]연인[O]



공군 IN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글·사진
양낙규
(아시아경제 기자)



양낙규 기자의 공군 취재기 7편

사람을 살리는 군인, 소방구조중대

2015년 3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폐품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인근 소방서에 화재를 신고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관할소방서의 화재진압차량들이 이미 다른 화재로 모두 출동을 나갔기 때문이다. 관할 소방서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던 비행단 소방구조중대는 긴급히 출동에 나섰고 신고 20분 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하여 대형 사고를 막아냈다. 안전사고는 물론, 대민지원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활약상을 엿보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10전투비행단을 찾았다.

비행단에 들어서자 활주로 위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한여름 날씨를 알렸다. 활주로 옆에 찾아간 소방구조중대는 한눈에 봐도 인상적이었다. 소방구조중대에서 있는 빨간색 소방차들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기세였다. 육중한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첫 이미지는 기자의 학창시절 꿈이었던 소방관의 이미지를 연상케 했다. 내심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당시 소방구조반장은 “무더운 날씨에 훈련을 하게 돼서 불길을 실제 접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된 하루가 될 것”이라며 겁을 줬다. 이날 날씨는 오전부터 32도를 훌쩍 넘겼다. 허 반장 손에 이끌려 장비를 착용했다. 소방구조장병들이 착용하는 기본적인 장비였지만 첫 단추부터 버거웠다. 군복위에 두꺼운 소방복만 입었는데도 등줄기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어 일반 면장갑보다 3~4배 두꺼운 소방장갑과 헬멧 등 4kg이 넘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니 걸음걸이조차 불편해졌다. 산소통은 압권이었다. 6kg가 넘는 산소통을 어깨에 메니 몸은 반사적으로 앞으로 숙여지고 숨도 가빠졌다. 안면을 모두 덮는 산소마스크를 써보니 거친 숨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다.

소방복을 거의 다 입었을 때쯤 갑자기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화재발생이다. 장병들은 각자 재빨리 움직이더니 기자와 똑같은 복장을 순식간에 착용하고 소방차로 달려 나갔다. 기자도 얼떨결에 뒤를 따라 나갔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소방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높이만 1m가 넘었다. 산소통까지 어깨에 멘 기자가 어떻게 할 줄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사이 나머지 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다. 차량에 올라타자마자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소방차 운전병은 본부와 교신을 통해 화재위치, 화재발생 건물의 구조, 화재의 종류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착한 곳은 장교들의 독신자숙소(BOQ). 소방구조장병들은 도착하자마자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고 재빨리 움직였다. 앞에서 있는 소방차의 소방호스를 뒤 소방차에 연결했다. 소방차 두 대로 불을 진압하기보다는, 한 대에 소방용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진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장병들은 진압을 위해 소방호스를 잡고 일렬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두 번째에 합류했다. 맨 앞에서 있던 장병은 물이 발사되면 압력으로 인해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어깨로 밀어 버텨줘야 한다고 말했다. 긴장한 탓인지 소방헬멧 안에서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화재가 발생한 방에 다가서자 장병들은 멈췄다.

맨 앞에서 있던 장병은 손으로 문의 표면을 만지기 시작했다. 불길의 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문을 갑자기 열면 산소가 급작스럽게 들어가 불길에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확인하고 문을 열자마자 진압은 시작했다. 뿜어져 나오는 물의 압력은 어마어마했다. 진입을 시도하던 장병은 천장을 먼저 살폈다. 혹시 모를 붕괴사고를 감지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선두에 섰던 소방장병은 의식불명의 환자를 발견하고 밖에 엮고 나와 소방마스크를 벗더니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기자는 순간 놀랐다. 맨 앞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장병은 바로 여군이었던 때문이다. 기자 또한 심폐소생술에 도전했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포기하고 말았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산소통을 메고 환자의 가슴을 반복해 누르다보니 차오르는 숨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김지혜 중사는 “공군에만 있는 ‘소방’ 특기는 ‘인명 구조’라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일반 소방관들이 받는 교육 외에도 군특성에 맞는 소방 교육들이 많아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훈련을 모두 마치자 뜨거운 아스팔트 위 아지랑이가 눈에 들어왔다. 찌는 듯한 더위도 불길을 잡는 이들의 열기 앞에서는 마냥 힘이 없어 보였다. 더욱이 가뭄을 극복하려는 농민들을 위해 물을 지원해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말을 들으니 더없이 이들이 자랑스러웠다. 공군을 지키는 힘은 이들에게서 나오는 듯했다. **AF**





공군 IN
조인, 조인!

글
이도아(공감기자)



사진
중사 조수민(홍보과)
취재지원
중위 이준건(홍보과)



bki

BAE, KIM & LEE LLC

법무법인(유한)태평

본격, 공군인 자긍심 충전 프로젝트!
빛나는 공군 예비역 다 모여라!!

조인, 조인!

鳥人

제16화

공군 장교에서부터 변호사까지,
마음먹은 것은 모두 이뤄내는 추진력 갑(甲)

‘김현정’ 변호사(학사 120기)

프로로그 ✈️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 건물 13층. 인터뷰 대상자인 김현정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국제금융과 무역으로 유명한 이곳 '강남 테헤란로'에 찾아왔다. 으리으리한 건물에 한 번 놀라고, 건물 내부의 깔끔함과 차분한 분위기에 두 번 놀랐다. 과연 커다란 로펌이라 그런지 드나드는 사람도 많았다. 다소 놀란 얼굴로 정문에서 서성대고 있으니 김현정 변호사의 비서가 우리를 먼저 발견하여 인터뷰 장소로 안내해주었다.

족히 열댓 명은 앉을 수 있을 만한 커다란 회의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일행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김현정 변호사가 회의실에 들어왔다.

군필(軍畢) 여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놀람을 금치 못했다.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준 그녀는, 뒤에 은은한 후광이 비취울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김현정 변호사에 관한 이력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그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학사장교 120기로 임관했으며 제11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에 배치되어 운영과장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증권금융2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래 제 꿈은 법조인이었어요.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한 뒤, 가족의 꿈이기도 한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공군 장교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비록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공군에서 복무했던 것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2008년에 임관한 그녀는 공군의 주요전력을 운용하는 11전비에서 인사행정담당으로서 전대장을 보좌하거나 전대원들의 인사관리를 하는 등 행정업무를 맡았다. 그 시절,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녀는 ‘여장교가 많지 않았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소위로 임관하고 처음 배속되었을



때, 11전비에 위관급 여장교는 3명뿐이었던단다. 자연스레 그녀는 주목을 받았고, 일을 잘하든 못하든 표가 많이 나서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한번은 상관의 이취임식과 관련된 문서를 잘못 하달한 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 오전에만 50통에 달하는 전화를 받았죠. 대부분 질책보다는 다음부터 실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준 전화였지만, 당시에는 등에 식은땀이 날 만큼 아찔했죠.”

그녀를 향한 주목은 종종 그런 식으로,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으로 다가오곤 했다. 어찌 실수가 단 한 번에 그쳤겠냐마는,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노력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타지에서 외롭고 흔들릴 때마다 부대원들의 조언과 응원을 바탕으로 끝까지 버텼다. 그런 그녀에게 기억에 남는 군복무 에피소드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군입대 당시 삭발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F-4D 전투기의 전역행사에서 내레이션을 맡은 것이었다.



▲ 학사장교 임관식에서 부모님과 함께



“기억에 남는 군복무 에피소드요? 음, 2008년 1월 1일, 입대를 목전에 두고 삭발을 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삭발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또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미용실로 향했죠. 그리고 F-4D 팬텀의 전역행사도 기억에 남네요. 당시 전역행사에서 내레이션을 했는데, 과거 공군에서 복무했던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녀는 복무 기간 동안 힘들 때마다 입대할 때의 마음가짐을 상기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소중하게 기른 머리를 모두 삭발할 정도의 굳은 각오,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배운 ‘무슨 일이든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 심리. 그렇게 그녀는 3년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게 되었다.



▲ 비행전대 운영과장으로 복무하며

공군에서 배운 자산이 어디 가나요?

제대한 그녀는 본래의 꿈이었던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입학했고, 모든 과정을 마친 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게 되었다. 2017년 현재 500명이 넘는 법 관련 전문가가 일하고 있는 대형 법무법인이고 국내외 다양하고 주요한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업무량과 그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란다. 그러나 군대에서 배운 조직 관리와 체력, 그리고 정신력은 큰 자산이 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단다.



더불어 방위산업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다는 점도 그녀가 군복무로 얻은 자산 중 하나라고.

“의뢰인들을 만나는 자리에 가끔 의뢰인이 공군 출신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공군에서의 복무 경험이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군대 이야기를 통해 대화 주제를 쉽게 이끌어낼 수도 있죠. 조직 관리나 체력·정신력도 큰 자산이고요. 어떤 직업을 가졌어도 공군에서의 경험은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공군이란?’이라는 질문에 김현정 변호사는 ‘나의 아름다운 청춘의 일부이자 자부심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녀는 매번 공군이나 F-15K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곤 한다. 또 기차를 타게 되거나 혹은 길거리를 지나다가 휴가 나온 공군 사병들을 보게 되면, 저절로 엄마 미소가 지어짐은 물론, 동질감까지 느낀다고 한다. 제대 후에도 공군은 그녀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저는 공군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그 결정에 확신이 있었는데, 입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부터 굳이 군대를 가야 하는냐는 말을 솔하게 들었죠. 하지만 전역 후 변호사가 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군에서 복무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들 하죠. 지금도 묵묵히 군복무를



하고 계실 공군 장병 분들께 힘내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자산으로 자리하여, 때때로 여러분이 지치거나 힘들 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힘이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년이 군입대 10주년인데, 월간 <공군>을 통해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 참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군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자랑스러운 공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F**



공군 IN
신고합니다!

기획
하사 김재겸
(홍보과)

사진
상사 백승열
(16비 정훈실)



취재지원
중위 도진석
(16비 정훈실)



방성은
병 759기
기지건설장비운전병
2015. 10. 19.
(이입대륙: 태연 - 1)

기지건설장비운전병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기지건설장비운전병은 굴삭기, 그레이더, 덤프 등 건설장비를 운전하여 활주로 피폭 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일을 합니다. 활주소에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실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끊임없이 장비운용연습과 피해복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철거 등 대규모 작업에 장비를 지원하여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일반차량은 물론 대형에서 중장비까지, 사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차량을 접할 수 있었고, 작동 및 정비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자동차와 중장비의 작은 고장은 혼자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중장비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차대에 배치받고 난 직후, '그레이더'라는 중장비를 처음 접하였을 때의 떨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회에서든 군에서든 다른 사람들은 접할 기회가 없는 장비를 조작한다는 점에서 설렘이었고 이와 동시에 기지건설장비운전병이라는 특기에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후임자에게 한마디

우리는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특히, 중장비는 작은 실수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장비에 오르면 내리는 그 순간까지 조심 또 조심해야 해. 곧 있을 피해복구대회에 중훈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부담 갖지 말고 평소 훈련한 것처럼 안전하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잘 모르는 점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선임들도 옆에서 도움을 줄 테니, 항상 배우는 자세로 생활하는 선임으로 성장하길 바라. 전역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자기계발도 열심히 해서 나보다 더 성공적인 군 생활을 보내길 바란다.



신.고.함.니.라

이종훈

병 995기

기지건설장비운전병

2019. 4. 19.

(입대곡: 아이유 - 팔레트)

기지건설장비운전병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공군에 입대할 때,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운전 실력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본군사훈련단에서 특기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군 특기 설명 책자를 살펴보다 기지건설장비운전병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자세히 알아보니 중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특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버지도 건설업을 하고 계시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지건설장비운전병으로서 업무 숙달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모르는 점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방성운 병장님과 다른 선임들이 잘 알려주셔서 조금씩 숙달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담당 장비를 배정받지 않아 어떤 장비를 맡게 될지 기대가 큼니다. 굴삭기, 로더, 그레이더, 도저 등 각각의 장비들이 모두 매력이 있어 하루 빨리 장비를 배정받아 다루고 싶습니다.

군 생활 중 목표는?

굴삭기, 로더, 그레이더, 지게차 등의 중장비 조작 능력을 숙달해서 군인으로서 제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국가기술자격검정 자격증을 따서 스스로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전역 후 건설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부분에서는 방성운 병장님처럼 후임들과 잘 어울리고 조언해주는 멋진 선임, 또 좋은 동기, 후임이 되고 싶습니다.

전역자에게 한마디

방성운 병장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 함께 군생활을 오래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정말 잘 챙겨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방성운 병장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16전투비행단 기지건설장비운전병으로서 최선을 다해 군 복무를 마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은 군생활 잘 마무리하셔서 건강히 전역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꿈 반드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회에 나가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F**





가을철 탈모 예방법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이는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생긴 두피의 염증으로 인해 약해진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탈모에 영향을 주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탈모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다. 가을철 건강한 모발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를 살펴보자.

탈모란?

우리는 정상 모발인 경우 약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하루에 보통 50개에서 60개의 모발이 빠지는데, 100개 이상 빠지는 경우 탈모증이라고 본다.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양상이 다르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때로는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분비되고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탈모가 일어나기도 한다.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내적 건강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탈모의 원인은?

남성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남성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20~30대부터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며 탈모가 진행된다. 여성 탈모는 출산과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약물 등으로 인한 호르몬 이상으로 발생한다. 그 외에 철 결핍증과 갑상선 기능 이상증, 테스토스테론의 증가, 비타민D의 이상 등도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원형 탈모증은 비흉터성 자가면역성 탈모 질환이다. 원형 탈모 환자의 약 10%는 다른 자가면역질환을 동반하는데, 갑상선 질환, 백반, 악성 빈혈, 아토피 피부염 등이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은?

머리카락은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므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머리카락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이 갈 수 있도록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낮에 활동하는 동안 두피에 쌓인 각질과 먼지, 헤어 제품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음식 섭취도 중요하다. 탈모의 영양 처방으로는 주로 비오틴, 철분, 셀레늄, 아연 등을 추천하는데, 그 외에도 '비타민B3와 판토텐산, 비타민B6' 등 비타민B군,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오메가3와 오메가6' 등 필수지방산 등이 모발과 관련한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식품으로 살펴보면, 머리카락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소플라본이 많은 콩과 두부, 해산물, 견과류, 카테킨이 많이 든 녹차 등은 단백질과 비타민E 등을 공급해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 비오틴과 판토텐산, 나이아신, 셀렌, 크롬, 아연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고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맥주 효모도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등 동물성 기름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남성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스트레스 등 심인성 원인으로 탈모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차단하거나 개선하도록 노력하자. **AF**



대한두피모발학회에서 제안하는 탈모 예방 수칙 7가지

- ① 과일 야채를 듬뿍 섭취한다. 물도 충분히 마신다.
- ② 고기류 등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삼간다.
- ③ 머리카락은 청결하게 유지한다.
- ④ 지나친 헤어스타일링, 스프레이, 젤, 무스 등의 사용을 피한다.
- ⑤ 잦은 염색과 파마는 피한다.
- ⑥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3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한다.
- ⑦ 두피를 자주 마사지해준다.

제12회 공군참모총장배 항공전투시뮬레이션 대회

제12회 공군참모총장배 항공전투시뮬레이션 대회

AIR COMBAT SIMULATION
CONTES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SEOUL ADEX 2017

참여대상
청소년 및 일반

일시
2017. 10.21 [토]
9:30 AM - 5:00 PM

대회종목



F-15K
공대공 전투



KF-16
공대지 전투



KT-1
항공 레이싱

장소
성남 서울공항

문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42-552-6932



| Air-power Report |

터보팬 엔진의 기틀을 다진

프랫&휘트니 F100



프랫&휘트니의 로고

냉전이 한창이던 1967년, 미국 해군과 공군은 당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던 함상 전투기 F-14와 제공 전투기 F-15에 사용할 신형 엔진이 필요했다. 선진형 가스 터빈(Advanced Turbine Engine Gas Generator : ATEGG)이라고 불린 이 공동 개발 계획은, 추력을 대폭 늘리면서도 엔진 자체의 중량은 가볍게 만들어 '추력중량비 1:9'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터보팬 엔진이 주류인 지금과 달리, 그때는 연비가 낮고 추중비 또한 1:4.5 정도면 일급에 속하던 터보제트 엔진의 시대였다. 롤스로이스·제네럴 일렉트릭과 함께 항공 엔진 3대 메이커 중 하나인 프랫&휘트니(Pratt&Whitney) 사(社)는 이를 위해 최첨단 재료와 새로운 설계를 통해 차세대 터보팬 엔진인 F100을 탄생시켰고, 이 엔진은 F-15와 F-16을 필두로 수많은 군용기에 사용되며 진화를 거듭해 나갔다.

F100-PW-100

1972년에 F100-PW-100이 장착된 F-15가 첫 비행을 시작했으나,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F-15의 도입이 늦춰지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애프터 버너를 작동할 때 갑작스런 스태그네이션 스톱(stagnation stalling)이 일어나는 문제는 받아들이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고정식 공기 흡입구를 채택했던 F-16에서는 문제의 발생률이 낮았고 충격파 제어를 목적으로 복잡한 구조의 에어 인테이크를 채택했던 F-15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였기에, 프랫&휘트니 개발진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기체를 설계한 맥도넬-더글라스(McDonnell Douglas) 개발진에게 돌려졌다.



F100 초기형의 시운전

F100-PW-200

F-16은 개발 단계에서 F100-PW-100과 거의 같은 사양인 F100-PW-200 장착을 의뢰했다. 이후 미 공군은 단발 엔진의 사고율을 낮추고 비용도 절감할 것을 목표로 1984년에 대체 전투기 엔진 계획(Alternative Fighter Engine : AFE)을 시작해 F100-PW-200의 공급을 계약하게 되었다. F-16C/D 블록30/32부터는 F100과 GE의 F110 두 가지 엔진을 모두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F100-PW-220/220E

디지털 전자 엔진 제어(DEEC) 시스템을 채용한 이 형식은 정비가 간편해졌고 내구성도 높아졌다. 재료 공학의 진보에 힘입어, 당시 구사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핵심 부품에 도입되어 미 공군 역사상 가장 높은 안전성과 임무 달성률을 거두고 있다. 198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이 모델 역시 F-15와 F-16 모두에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엔진은 점화되면서 추력을 높이기 시작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특유의 소리를 낸다.

F100-PW-229/229A

F100-PW-229는 220E에서 시작된 디지털 제어기술을 더 발전시킨 엔진이다. 팬과 압축기의 구조를 개선하고 부품의 수명도 늘어나 유지 관리 작업이 간편해졌다. F100-PW-229A에는 F-22가 선택한 F119 엔진과 F-35의 F135 엔진의 개발을 통해 얻게 된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최근에는 터빈 소재가 개선되고 온도 관리 기술 도입 및 압축기 역학 설계와 전자 제어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워졌다.

F100-PW-232

F100-PW-229의 추력향상형이지만, 당분간 양산은 보류되었다. 이 엔진을 달기로 예정한 기체는 F-16E/F 블록62였으나 실제 생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함께 보류되었다. **AF**



제공전투기로 개발된 F-15는 F100 엔진과 함께 성장했다.





공군 재무관리본부

대출 이용 시 이것만은!



지난달에 안내해드린 금융꿀팁들은 어떠셨나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9월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공군 가족들에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 중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관리가 비상'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할 때는 1% 금리에도 긴장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인하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정의 부채관리에 대해 점검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1)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서 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후에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을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때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 전에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상승 단계에 따라 수율을 해주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3) 미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금리인하를 원할 경우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진했을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4) 금리인하요구가 잘 되려면?

- ① 신용등급상승
 - ② 새로 취직하거나 승진
 - ③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 등
-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 펀드, 방카, 신용카드 등의 거래실적과 거래기간을 감안하여 등급별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금리, 수수료 등에 혜택을 부여하므로 수시로 자신이 우수고객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II.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1) 대출 전에 준비할 것

- ① 대출 금액·기간을 신중히 결정합니다.
- ② 금융감독원 사이트의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상품한눈에]를 보면 은행별 금리와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대출은행에 거래를 집중하세요! 은행별로 금리감면조건이 있습니다. 급여이체, 카드사용, 자동이체 등 조건을 맞추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출 중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① 대출받은 후 승진하거나 연봉 상승시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세요!
- ② 상환여력 부족 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내세요. 이자 일부를 내는 만큼 납입일이 미뤄져 높은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출 만기 시 체크해야 할 부분!

자금사정에 맞춰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바꾸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일부를 금리가 싼 만기일시상환 대출로 바꾸거나 월 단위 만기연장을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III. 자동차 할부금융 제대로 이용하기!

(1)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여신금융협회공시실(gongsi.crefia.or.kr)에서 자동차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해당조건을 입력하면 비교확인이 가능합니다.

(2) 다이렉트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앞에 "(D)"가 붙어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3)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금융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다른 금융회사로 대출을 변경하고 싶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라면 개인의 경우 4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상환 후에는 반드시 저당권 말소를 신청하세요.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된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하였다도 자동차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5)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내용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기 좋은 곳이라 두 달에 걸쳐 안내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에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요. 9월에는 선선한 날씨와 함께 공군가족 여러분들도 활기찬 한 달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대출에 관한 팁들을 잘 인지하셔서, 기운찬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AF**



Hollywood English

모아나 (Moana)



'Nature is calling me'를 직역하면 '자연이 나를 부른다'입니다. 속뜻은 '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렇다면 무더운 날 누군가가 'The ocean is calling us'라고 말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아닙니다. '우리 바다에 뛰어들자!'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는 16세 소녀 '모아나'의 모험담입니다. 모아나의 뜻은 바다(ocean)입니다. 참고로, 영화의 광고 문구는 'The ocean is calling'이며, 뜻은 '바다가 부른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가 모아나를 부릅니다. 큰 바다의 암초 너머로 떠나보라고 부릅니다. 한편 소녀의 아버지 '투이'는 죽어도 암초 너머로는 나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여신 '테 파티'를 소개합니다. 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의 깊은 곳에서 대륙을 끌어올려 여러 개의 섬을 만든 여신입니다. 수많은 섬 가운데 하나가 '모투누이', 즉 모아나의 부족이 사는 터전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답던 이 섬에 위기가 밀려옵니다. 어떤 위기인 걸까요?

이번엔 '마우이'를 소개합니다. 반신반인(半神半人, demigod)의 존재인 그는 잠들어있던 테 파티에게서 심장을 훔쳐갑니다. 그 결과 모든 섬은 저주받아 암흑천지가 됩니다. 심장을 되돌려놓지 않으면 모아나의 부족도 곧 파멸하게 됩니다. 한편, 마우이는 용암 괴물 '타 카'와 결투하다가 심장 과 비장의 무기인 갈고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그의 능력도 퇴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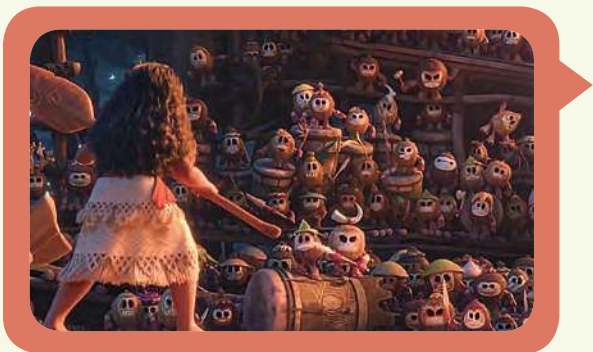
미래의 족장인 모아나는 날마다 바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해양 탐험가 기질도 그녀를 자극합니다. 멘토 할머니 '탈라'는 손녀의 방랑벽(wanderlust)을 부추깁니다.

“넌 어쩌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될 거야. 가장 먼 별을 따라가 라고 마음이 속삭이면 그 마음의 소리가 바로 너인 거야(You may hear a voice inside. And if the voice starts to whisper to follow the farthest star the voice inside is who you are).”

이빨싸, 모투누이 섬이 암흑으로 뒤덮이고, 물고기들이 사라 집니다. 주식인 코코넛은 흑사병에 걸린 듯 속이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마침내 모아나는 가족 몰래 떠납니다. 통방울눈을 가진 겁쟁이 닭 '헤이헤이'도 함께!

'Every quest has its trials.' 즉, '모든 탐험은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어릴 때 모아나는 독수리로부터 새끼 거북이를 지켜 바다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 적 있는데요, 그게 운명적 인연이 된 건지 바다는 모아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지켜줍니다. '초록색 빛이 나는 보석(green jade-like stone)', 즉 테 파티의 심장도 그녀가 손에 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시 마우이의 등장. 모아나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야만 테 파티가 있는 곳에 갈 수 있거든요. 마우이가 심장을 훔친 건 인간을 돕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아나는 그와 동지가 됩니다. 한편 해적단이 벌떼처럼 등장합니다.



디즈니의 창의성이 만든 패러디 캐릭터들입니다. 바로 코코넛 해적단인 '카 카마라'입니다. 그들의 현란한 액션은 영화 '매드 맥스 : 분노의 도로' 추격전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흥미진진합니다.

<모아나>에서 특히 돋보이는 점은 백마 탄 왕자가 반드시 등장하고아미는 전통적 디즈니 작품들과 다르다는 점. 그렇 습니다, 이번엔 왕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아나가 공주처럼 군다며 마우이가 놀릴 때 그녀는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난 공주가 아니라고(I'm not a princess)!”

머쓱해진 마우이가 둘러댁니다.

“드레스 입었겠다, 동물 짝패들 있겠다, 그럼 공주지(If you wear a dress and have an animal sidekicks, you're a princess).”



대단원에 이르러 이들 2인조(The Twosome) 영웅은 거대 게(crab) 괴물 '타마토야'도 너끈히 물리칩니다. 이제 남은 건 무시무시한 용암 괴물과의 최종 대결.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테 파티에게 가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 놓을 수 있는데요, 과연 그들은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까요. 짝패(sidekick)인 겁쟁이 통방울 닭의 맹활약을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AF**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사소한 보이지만 대담한 디지털 기기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만큼 복잡한 고급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기기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건 놓치기 쉬운 실수를 방지해주고 사소한 기능들을 탑재한 이런 제품들이 아닐까요? 장병 여러분들에게 이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디지털 기기는 어떤 것인가요?

거울아, 오늘 내 피부는 어때? 하이 미러(Hi Mirror)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라고 묻던 동화 속 얘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14인치 LCD 터치 스크린인 하이미러(Hi Mirror)가 바로 그것! 기기 상단에 부착된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피부 상태를 분석해 줍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피부 타입에 맞는 피부 관리법, 제품까지 추천해줍니다. 게다가 평소 쓰고 있는 화장품의 바코드를 인식해서, 내 피부 타입과 맞는 제품인지 아닌지도 구분해줍니다.



회의 중이니, 무음으로!

로가디스의 정장, ‘스마트 수트(Smart suit)’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트가 ‘일상복’인 직장인들에게 단순히 멋있는 수트가 전부일까요? 로가디스의 스마트 수트는 두꺼운 울 원사인 태번수를 꼬아 만든 원단을 사용해 탄력이 뛰어나 구김이 가지 않는 것이 특징. 활동적인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겠죠?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아침마다 구겨지는 수트로 스트레스 받는다면 스마트 수트가 필요할 겁니다. NFC칩이 수트 주머니 안에 내장되어 있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넣었다 빼면 자동으로 화면 잠금이 해제되고, 무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손목 버튼에 스마트폰을 대기만 해도 회의, 오피스, 드라이브 모드로 바꿀 수 있죠. 자신의 명함을 저장해 두었다가 상대방 스마트폰에 바로 전송할 수도 있는 똑똑한 수트!



오늘 내가 얼마나 걸었더라? 일본의 스마트 벨트, 웰트(WELT, Wellness Belt)

스마트 워치도 귀찮은 장비 여러분이라면 주목! 벨트만 차도 알아서 건강과 체형 관리를 해준다면? 벨트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허리 둘레, 걸음 수, 앉은 시간, 과식 여부를 감지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기록해준답니다.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로 한 달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되니 사용도 간편하죠?



내 우산 어디에 있지? 움브렐라(Oombrella)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우산'일 겁니다.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땐 무척 난감하기 마련. 무엇보다 '안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우산에 GPS와 알림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움브렐라는 날씨 정보 공유 소셜 플랫폼을 운영하는 'Wezzoo'가 만든 스마트 우산.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우산과 폰의 거리가 멀어질 때 알림으로 경고를 울립니다. 게다가 Wezzoo의 기상 정보를 통해 미리 우산을 챙겨야 하는 날도 알려주죠.



지갑 놓고 가셨어요? 세이프 월렛(Safe Wallet)

우산 못지않게 가장 자주 잃어버리는 액세서리가 지갑입니다. 단순히 GPS 추적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갑인 만큼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쓴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세이프 월렛엔 두 개의 모션 센서와 조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지나치게 멀어지거나 땅에 떨어질 때, 두드리는 패턴과 지갑을 여는 행동의 유무로 사용자와 도난을 구별하는 똑똑한 기능을 지녔습니다. 어딘가에 놓고 나갈 때도 센서가 울려 지갑을 쉽게 찾을 수 있죠!



분명 가방 속에 열쇠를 넣었는데... 레오트(Leoht)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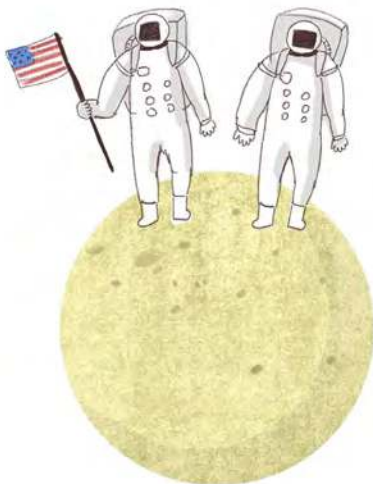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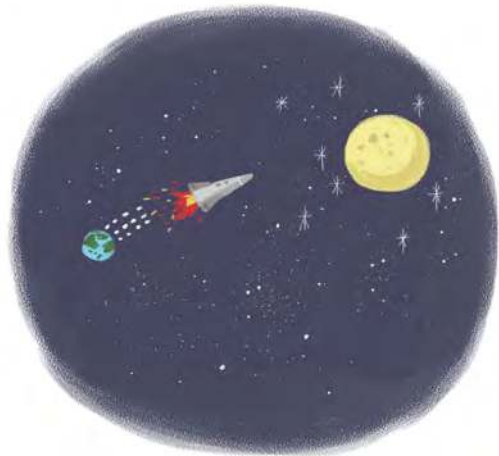
가방 안에 넣어 둔 열쇠나 동전, 스마트폰을 찾느라 한참을 뒤적여 본 적 있을 겁니다. 레오트의 스마트 백은 내, 외부에 LED 조명이 부착되어 어두운 장소에서도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심플한 기능을 지녔습니다. 심플하지만, 가장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죠! 게다가 가방 안에 두 개의 USB 포트가 있어서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PC 충전도 가능합니다. 가방의 조명은 전용 충전 플레이트 위에 올려두고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AF**



생각하는 그림

달에 함께 새긴 발자국

#1 1969년 7월 20일, 세 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며 우주시대를 열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첫발을 내딛으며 "이것은 한 인간의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닐 암스트롱의 이름은 전 세계에 널리 퍼졌고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2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달 착륙' 하면 가장 먼저 암스트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순간 달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암스트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진으로 달에 성조기를 꽂고 그 옆에서 손을 흔드는 우주비행사는 암스트롱이 아닌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이었습니다.

#3 올드린은 암스트롱과 함께 달 표면을 걸어 다녔지만 최초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드린은 귀환 인터뷰에서 “지구에 돌아왔을 때는 암스트롱의 배려로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라며 웃으며 답변했습니다. 암스트롱에 대한 질투와 시기 대신 팀을 생각한 답변을 하며 다른 별에서 지구로 온 최초의 사람이 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4 또한 암스트롱과 올드린처럼 직접 발을 디딘 것은 아니지만, 달 착륙과 더불어 지구로의 무사 귀환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이클 콜린스’로 아폴로 11호의 사령선인 콜롬비아호를 제어하며 달에 착륙했던 두 사람을 안전하게 귀환시켰습니다.

#5 잠깐의 통신 두절과 착륙선의 연료 부족으로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우주 미아가 될 뻔한 상황을 침착한 대응으로 해결한 사람도 콜린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론과의 술한 인터뷰에도 이 일을 내세우거나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료들과 나란히 서서 열은 미소만을 지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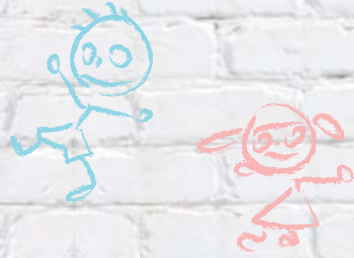


#6 1999년 7월 세 명의 달 착륙 영웅들이 ‘새뮤얼 랭글리 훈장’을 받을 때 암스트롱은 말했습니다. “올드린, 콜린스는 물론 아폴로 계획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합니다.” 위대한 업적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 대신 본인을 낮춘 겸손한 자세가 팀을 성공으로 이끄는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때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미덕으로 팀을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AF**



담벼락

그 손일곱 번째 이야기 「낙엽」



전술항공동맹재단

군수처

상병 심진웅

노란 꽃길



작년 10월 말,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품고 자대에 첫발을 내딛었다. 지금은 전역한 으뜸병사를 따라 웅비대로(부대 내 중앙도로)를 걸어 생활관으로 갔다. 활주처럼 넓어보였던 웅비대로 양옆에는 수십 그루의 은행나무가 샛노란 손을 흔들며 나를 반기고 있었다. 나의 군 생활은 그 노란 낙엽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자대에 오자마자 시작된 훈련과 교육을 정신없이 받다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동기들하고만 생활하던 기본군사훈련과는 다르게 선임과 상관이 생겨서 그런지, 더 긴장하고 열심히 생활했다. 고생 뒤에 낙이 온다 했던가. 어느덧 작대기 하나가 돌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고, 자대 전입 후 맞는 첫 휴가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전투모의 계급장을 일병으로 바꿔 달고 휴가를 가기 위해 나선 웅비대로에는, 한 달 전 나를 반기던 노란 낙엽들이 전부 떨어져 있었다. '유명인들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처럼, 은행잎들이 나에게 노란 꽃길을 만들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울이 찾아오고 웅비대로의 은행나무들은 노란 손들을 전부 잃어버렸다. 나를 위해 깔려 있던 노란 꽃길도 갑작스런 폭설에 그 빛을 잃었다. 그리고 나의 군 생활에도 위기가 닥쳤다. 부모초청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부모님과 부대를 돌아보고 휴가를 나갈 생각만 하고 있던 내게 일어난 사고는 순간이었다. 빈 방독면 캔을 정리하던 중 한순간의 부주의로 오른손가락 두 개를 심하게 베었다. 곧바로 의무대대로 이송된 나는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밤새 수술을 받았다. 결과는 최소 한 달간의 입원, 그리고 손가락 신경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진단이었다. 사라진 노란 꽃길처럼 나의 행복한 군 생활도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야 연말을 보내고 나는 부대로 돌아왔다. 나의 자대가 낯설기만 했다. 내가 다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었다. 손가락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환자가 된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시간은 또 흘러서 날이 어느 정도 풀리고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무기력하고 반복적인 출근길을 또 걷고 있던 나는 문득 노란색을 찾았다. 한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던 땅 위로 작년의 그 낙엽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희미했지만 분명 노란 길이였다. 꽃길은 겨우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작스런 폭설에 빛을 잃었던 것은 나뿐이었다. 조심스레 꽃길을 밟으며, 내 발걸음도 좀더 가벼워진 걸 느꼈다. 그 뒤로는 의무대에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지금은 많이 나아져 업무를 보는 데에도 지장이 거의 없다.

요새도 출근길에 웅비대로를 지나며 종종 은행나무를 바라본다. 이미 푸르른 잎사귀들이 한 해를 열심히 보내고 있다. 저 잎사귀들이 언젠가 나의 노란 꽃길을 또다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나는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보낸다.



제307방공관제대대
전자중대
중사 서인정

삶의 고민과 낙엽

겨울이 오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겨울에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생명력을 잃고 모든 것이 꿈꿈 얼어버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여러 가지 고민에 어지러운 내 마음도 같이 추워지는 착각도 들어 겨울을 더더욱 싫어했다. 20살에 집에서 독립해 살아오는 동안 나의 삶은 따뜻한 봄이었다기보다 추운 겨울 쪽에 가까웠다. 삶을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을 혼자해내야 한다는 중압감은 내 마음을 더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인생의 무게에 점점 눌러 마음이 더더욱 차가워질 때쯤, 우연한 계기로 늦은 나이에 군문에 들어섰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 시작했던 군 생활이었지만, 모든 시스템이 사회와 다른 군대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앞으로의 인생과 진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다. 힘든 군 생활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몇 번 지나가니 가을이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고 늦은 가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내가 싫어하는 겨울이 곧 오는구나' 하는 상념에 젖어 있었다.

고민하는 내 얼굴이 많이 좋지 않아 보였는지 한 선배가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선배에게 군 생활의 어려움과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다. 그 선배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내 이야기가 끝나자 이렇게 말했다.

“왜 모든 것을 혼자 안고 가니? 저 낙엽을 털어내는 나무처럼 마음속의 짐을 훌훌 털어버려. 그러면 얼마나 가벼워지겠니? 그리고 저 나무처럼 훌훌 털어버려야 또 겨울을 견디고 새봄을 맞아 움을 틔우지 않겠니?” 나는 선배의 말에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기만 했지 털어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더더욱 삶이 힘들었고 고단했다.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었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내가 안고 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았었다.

그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선배에게 들었던 말을 가슴에 새겼다.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이후 최선을 다해 근무했고, 진급이라는 명에도 누렸다. 나무가 털어내는 낙엽을 보며 내 마음의 고민을 털어낸 후 내 삶은 많이 변했고,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후배들도 많이 생겨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요즘도 마음속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나무가 훌훌 털어내는 낙엽을 생각하며 내 마음의 고민도 훌훌 털어버리려고 노력한다. 마음의 짐을 스스로 털어내니 그렇게 춥다고 느꼈던 겨울도 더 이상은 춥지만은 않을 것 같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기지방호전대
상병 박태석

셋노란 단풍낙엽과 첫사랑

얼마 전에 다녀왔던 휴가 때 있었던 일이다. 문득 책상을 정돈하다 고교시절 보았던 책들을 하나 둘 펼쳐보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는 수험생 시절 소중히 쓰던 스테디 플래너도 있었다.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느새 날씨는 가을과 겨울 사이 어디쯤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예쁘게 코팅된 단풍낙엽 하나를 찾았다. '이게 뭘까?' 하고 잠깐 고민하다 문득 셋노란 단풍낙엽을 좋아하던 첫사랑이 떠올랐다. “셋노란 단풍잎이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행운을 빌어!” 얼굴 붉히며 수줍게 내게 건넸던 낙엽책갈피였다. 순진했기에 두려울 것도 많았던 열아홉수험생 시절, 그렇게 낙엽은 아련한 그 시절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대학을 한 번에 가지 못했다. 친구들이 대학교에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던 때, 나는 재수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세상이 아속하게 느껴져 숨어서 울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해 하기도 했다. 같은 길을 걷게 된 그녀와도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우리에게, 아니 적어도 어린 나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현실이었다. 첫사랑은 서툴고, 정제되지 않은 연약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대망의 수능일이 성큼 다가왔다. 고시장에 조금 일찍 도착해 긴장된 마음을 풀려고 플래너를 꺼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보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플래너 한가운데 그녀가 손수 만들어준 단풍낙엽 책갈피가 꽂혀있는 게 아닌가! 마음이 많이 아렸다. 또한 왠지 모르게 비장해졌다. 시험을 치르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추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였을까. 그렇게 나는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갔고, 그해 목표하던 대학에 합격했다. 스물 하나, 대학교에 오고 나서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정말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았기에 바쁘게 살았다. 친버림이 사랑 불어올 즈음, 대학에서 친해진 지인이 오케스트라 협주를 한다가에 연주회를 보러 갈 기회가 생겼다. 공연이 끝나고 꽃다발을 건네주기 위해 인파 속에서 지인을 찾던 와중에, 또 다른 꽃다발을 들고 있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너무도 많았기에 마주서지 못했다. 찰나의 순간이 끝나고 서로의 길을 걸어갔다. 설렘던 그 시절을 오롯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가을과 겨울 사이 어디쯤,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로 뒤섞인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가는 길. 열아홉의 설렘과 스물의 아픔은 그렇게 조금씩 평행선을 좁혀가고 있었다.

곧 또 다른 가을이 다가올 것이다. 가을과 겨울 사이 그 어디쯤에서 셋노란 단풍낙엽들이 떨어질 테다. 가끔은 그녀의 근황이 궁금해질지도 모르겠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는 있는지. 우리의 설렘던 열아홉과 아팠던 스물, 그리고 아련했던 스물 하나를 담은 낙엽과 마주하게 된다면……. AF



책 읽는 공군



28

문학을 통한 카타르시스

정유정 지음
은행나무 펴냄

문학 작품을 사람들이 향유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를 들어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표현된 '즐거움'이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재미를 향유하기 위한 판타지나 무협 소설을 예로 들어도, 주인공의 시련에 독자는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성공에 일희(一喜)하며, 실패에 일비(一悲)합니다. 이러한 감정이입을 통한 간접체험은 독자들을 소설에 몰입하게 하고, 대리만족에 해방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감정이입의 기제(mechanism)를 벗어난 작품도 있습니다. 바로 문학적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제공하는 작품들입니다.

문학적 카타르시스란 비교적 잘 알려진 용어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의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유정 작가의 작품 '28'도 문학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애견 보호소를 운영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작가는 일상과 다를 바 없는 소설에 '전염병'이라는 사건을 투입하고, 그것이 몰고 온 여파를 그려냅니다. 이 소설의 전염병은 영화 '부산행'이나 '나는 전설이다'의 전염병과는 다르게 소수의 면역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그려집니다. 환자를 후송하는 소방관들은 물론, 이들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죽어 나가면서 두려움은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개를 통하여 전염병이 퍼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반려견을 버리게 되고 그 반려견은 들개 무리가 되어 상황을 보다 악화시킵니다.

결국 정부는 불치의 전염병이 두려워 도시를 격리조치하고, 그 안의 시민들은 무법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시민들을 지켜야 하는 경찰들은 모두 철수하고, 그들을 치료해야 하는 의료진들은 모두 도망가 자신의 생존에 급급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들은 들개 무리와 다름없는 모습이 되고, 인간성마저 파괴된 모습으로 그려 집니다. '28'의 작가는 여기서 나아가 신념을 마지막까지 고수하는 주인공들을 이 무법지대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독자에게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통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주인공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욕망에 의하여 행동할 것인가?'

고난을 넘어 다른 고난이 더 나오고, '주인공이 행복해졌으면' 또는 '전염병의 원인이 밝혀져 치료가 되었으면' 하는 독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28'의 결말은 잔인하기만 합니다. 이 소설의 불행한 결말을 볼 때마다 머리로는 불완전한 작품을 보는 듯한 찝찝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결말을 새로 써보는 등 독자만의 노력도 해 보지만, 가슴으로 드는 안도감과 후련함은 역설적으로 왜 이 작품이 문학적 카타르시스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가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난 후에 비로소 머리로 이해하는 문학적 카타르시스, 그것이 잘 담긴 소설 '28'. 문학적 카타르시스를 느껴 보길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AF**

글
일병 천혜민
제11전비 보급대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_____
- 월간 <공군> 9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_____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_____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_____

9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7

September
Vol.471

월간 「공군」 9월호

잘 읽고 정답은
상단 엽서에 적어주세요~

Quiz

마감일 : 9월 30일까지

1. 평면의 종이 전개도를 잘라 접거나 붙여서 입체적인 작품을 만드는 취미 활동은?
① 종이접기 ② 프라모델 제작 ③ 페이퍼 글라이더
2. 러시아의 음악가로, '사계'를 겨울에 시작해서 가을로 끝나게끔 편곡한 사람은?
① 브람스 ② 글라주노프 ③ 베토벤

7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 정답** 1. ① 거문고자리 2. ② 국민조종사
당첨자 경남 창원 서공주 / 전북 완주군 황준혁 / 서울 도봉구 안대근
부산 강서구 허윤아



보내주신 독자엽서 중
매월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분께
'에코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1337

신고 전화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
Defense Security Command



간첩,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테러범 등 우리나라의 숨은 위험들을 신고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④ 신고유형
간첩 / 테러범 / 외국스파이 / 군사기밀 유출 / 방산스파이 / 보안사고(위반) / 군관련 제보

⑤ 상금내역
간첩선·간첩 : 최고 20억원 / 테러 관련 신고 : 최고 1억원 / 군 관련 제보 : 최고 5천만원

⑥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 온라인 신고 www.dsc.mil.kr / 영상공중전화 신고 '그린비' 및 'KT' 기본화면